

껌, “씹을수록 몸도 마음도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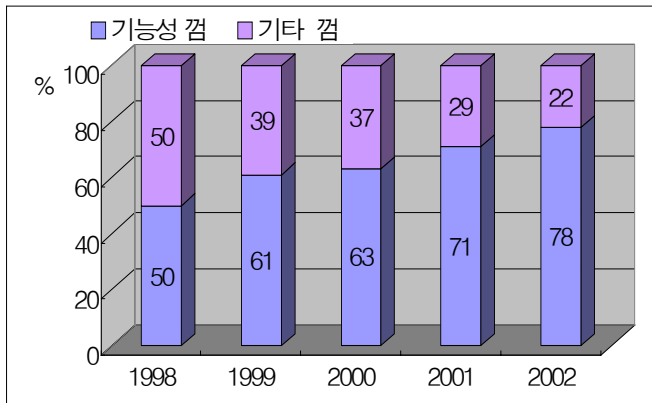
특허청, 기능성 껌 관련특허 78% ... 식물 추출물부터 효소까지 다양

심심풀이로 씹고 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던 껌이 기능성 식품의 대표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단순한 기호품으로 여겨 왔던 껌에 특수한 성분을 첨가해 입냄새 제거, 충치예방, 치아 미백 등의 입속 건강기능 뿐만 아니라 니코틴 제거, 숙취 해소, 질병 예방 등 몸 속 건강까지 생각한 기능성 껌에 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능성 껌이란 씹는 즐거움이라는 기본 기능과 맛, 향, 색깔 등의 기호성만을 추구하던 종래의 껌과는 달리 특수한 성분을 첨가해 신체리듬 조절, 질병 예방 등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든 껌을 말한다.

기능성 껌 특허 출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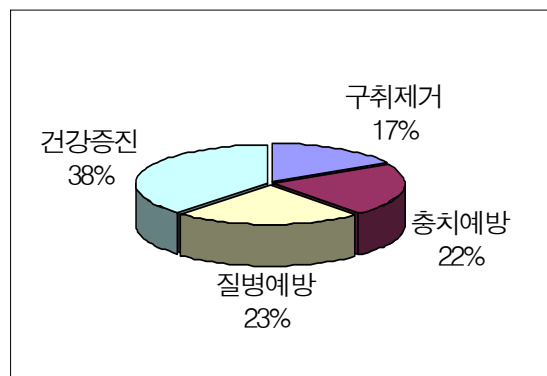
2002년 껌 시장규모는 국내 제과시장의 9-10%인 3400억원대로 추산되며, 껌 시장에서 기능성 껌이 차지하는 비율은 75%에 달해 2년 전인 2000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4.5배, 비율로는 2.2배 성장했다.

기능성 껌의 특허 출원은 1998년 8건으로 전체 껌 특허출원의 50% 정도였으나, 2002년에는 14건으로 전체 껌 특허출원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기능성 껌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에 따라서는 ▷포도씨 추출물·카카오껍질 추출물·오미자 추출물 등의 충치예방 성분을 함유한 껌이 13건(22%) ▷녹차·라스베리 엑기스·송이버섯 추출물 등의 입냄새 제거 성분을 함유한 껌이 10건(17%) ▷소화 촉진을 위한 소화효소 제제·유해물질 배출을 위한 엽록소 및 체내 니코틴 제거를 위한 식물류 추출물 등의 건강증진 성분을 함유한 껌에 관한 출원이 23건(38%), 고혈압 억제에 위한 돌미나리 추출물·위장병 억제에 위한 마누카 꿀 등의 질병예방 성분을 함유한 껌이 14건(23%) 등이다.

특허청은 최근 기능성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내 껌 시장에서 기능성 껌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효능을 가지면서도 맛, 향, 씹는 느낌 등의 기호성을 보완한 기능성 껌 및 여러 가지 성분을 복합적으로 함유한 다기능성 껌 등 차별화된 껌을 맛보게 될 날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기능성 껌의 특허 출원비중



<Chemical Journal 2003/11/13>